

하인두암에 대한 유도항암화학요법과 항암화학요법, 방사선치료의 치료 성적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학교실,¹⁾ 중앙내과학교실,²⁾ 이비인후과학교실³⁾

송시열¹⁾ · 이상욱¹⁾ · 최은경¹⁾ · 김종훈¹⁾ · 안승도¹⁾
신성수¹⁾ · 김성배²⁾ · 김상운³⁾ · 남순열³⁾

목적 : 근치적 목적의 유도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하인두암 환자의 치료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

방법 : 1990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치적 목적으로 유도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시행 받았던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. 대상환자군의 연령분포는 40~78세(중앙연령 60세)이었으며, 임상적 병기분포는 1기 2명(4.0%), 2기 1명(2.0%), 3기 9명(18.0%), 4기 38명(76.0%)이었다. 방사선조사량은 69.4~78.0Gy(평균조사량 72.7Gy)이었고, 방사선조사기간은 44~142일(평균 63.6일)이었다. 유도항암화학요법은 cisplatin 60mg/m²+5-FU 1000mg/m² 또는 cisplatin 75mg/m²+docetaxel 70mg/m²을 3주간격으로 1회 내지 3회 투여하였다. 추적관찰기간은 2개월에서 81개월까지이었고 중앙값은 20개월이었다.

결과 : 전체 대상환자들의 3년 및 5년 생존율은 52.6%,

34.7%였으며, 무병생존율은 54.4%, 48.4%이었다. 질병특이 3년 및 5년 생존율은 61.5%, 40.5%이었다. 환자의 병기, 림프절병기, 연령, 치료기간 과 방사선조사량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. 국소제어율은 58.0%였으며, 경부림프절에 대한 제어율은 78.0%이었다. 근치적 목적의 치료 이후 33명(66.0%)의 환자에서 성문부를 보존할 수 있었다.

결론 : 진행된 하인두암에서 근치적인 목적의 유도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결과 수술로 인한 침습성을 피할 수 있었고 성문부를 보존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.

중심 단어 : 하인두암 · 유도항암화학요법-방사선치료 · 성문부 보존.